

2000.12.31

자신의 몸을 드리십시오

롬 12:1-5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저는 요즘 목사가 된 기쁨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겠지만, 저는 목사가 되어 예수님을 독차지한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고 있는 일에서 모두 저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좋은 이유는 제가 원하던 원치 않던 예수와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모든 일에서 예수와 상관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요즘 왜 제가 행복한가 생각했더니 제게 꿈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꿈이란 것은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생애에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주신 것만 생각해도 힘이 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이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누가 섭섭한 말을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온누리교회 때문에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교회가 있으니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조직이 있지만, 온누리교회 생각만 하면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따뜻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성도님들만 생각해도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이 여리고성 같고 철옹성 같이 느껴질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용기와 희망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꿈이 제게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가면 엉클어진 것들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풀리게 되어 있고,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새해를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새해를 기다리는,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안식년 때 하나님께서는 2천/1만 비전을 주셨습니다. 2010년까지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이 비전이 벌써 구체화 되고 있고, 2천명의 선교사를 2010년까지 파송하려고 하는데 벌써 5백명을 파송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1만사역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번 안식년 중에는 하나님께서 100만/100만 꿈을 주셨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숨을 거두기 전까지 100만명을 전도하리라는 것입니다. 1년에 10만명씩 10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 TV등으로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명이 QT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만/100만 꿈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능하리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100만명을 전도할 수 있고 100만명이 QT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개교회가 100만명을 전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밤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전을 가지십시오.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돈을 버는 의미가 생깁니다. 공부, 결혼, 일을 왜 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십일조가 아니라 십의 구조를 드리십시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과 교회와 선교사를 돕겠다는 비

전과 환상을 가지고 출근하십시오.

선생님, 의사가 직업이신 분들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면, 기도를 받지 않을 환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매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이 사는 방법

구원받은, 성령받은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물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는 제물로 살아야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 아니라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과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제물의 특징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제물을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도 삶 전체가 제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제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물의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우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물은 산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죽은 것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각이나 마음, 정신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몸입니다. 육체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2001년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시간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서 몸을 드릴 수 있습니까? 몸을 드린다는 것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관념으로 믿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현장에 우리 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고상하게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상하게 돌아가시고, 관념으로 돌아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하지 않고 사람을 시켜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당신 육체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의 제물, 가정의 제물, 교회의 제물이 되십시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좀 내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성경공부에 힘쓰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보고 내 시간에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비슷하면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운영하는 방법이 같으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충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라야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달라야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부인은 교회에 잘 다니지만 남편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부가 많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다른 부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남편이 느끼기에 '아, 내 아내는 다른 아내와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말만 잘 하고 뒤에 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 한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살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남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면 외롭지 않은데 다르게 살면 외롭습니다. 버림받고 왕따 당하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뿐더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구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선택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수행할 때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번째는 당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분수를 지키십시오

세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세번째는 분수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살아가는

원칙들입니다.

제물이 되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또 생각하고 예민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주제파악하고 분수에 맞게 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4, 5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남의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일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것이 피라미드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참으로 놀라웁습니다. 기중기도 없었고 중장비가 없었던 그 때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 수 많은 돌들을 기하학적인 계산에 의해 하나씩 하나씩 쌓았을 것입니다. 바다를 막아 간척지를 만들려면 아무 돌이나 마구 쏟아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돌들을 완벽한 계산에 의해 오차없이 하나하나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라미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은사를 따라 제물이 되어 내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집도 주실 것이고, 많은 성도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도들이 아직은 오합지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분의 은사를 따라 그분이 있어야 할 위치에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 7천명의 정예 크리스천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내고, 열정을 바치며, 밤을 새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하면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세상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제물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 비전에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께서 적재적소로 그 사람을 보내고,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내년 우리교회의 표어는 “새로운 꿈을 갖게 하소서”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목표는 “1인 1봉사 1사역”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최소한 집사님들은 반드시 자원봉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가서 닦아주고 세워주고 땀을 흘리는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내년에 여러분들이 봉사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해비타트에 가시든지, 고아원에 가시든지, 양로원에 가시든지, 번동에 가시든지 사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몸으로 봉사할 사역 현장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직장을 변화

시키십시오. 이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답게 맺힐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세상을 닦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구분하는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수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은사대로 몸으로 봉사하십시오. 이 때 여러분의 믿음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에 축제가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